

코오롱, LCD TV용 광확산판 개발

일본기업 이어 세계 3번째 ... 전자재료 매출 2005년 1000억원 기대

코오롱(대표 조정호)이 TFT-LCD용 광확산 필름에 이어 LCD TV용 광확산판 시장에 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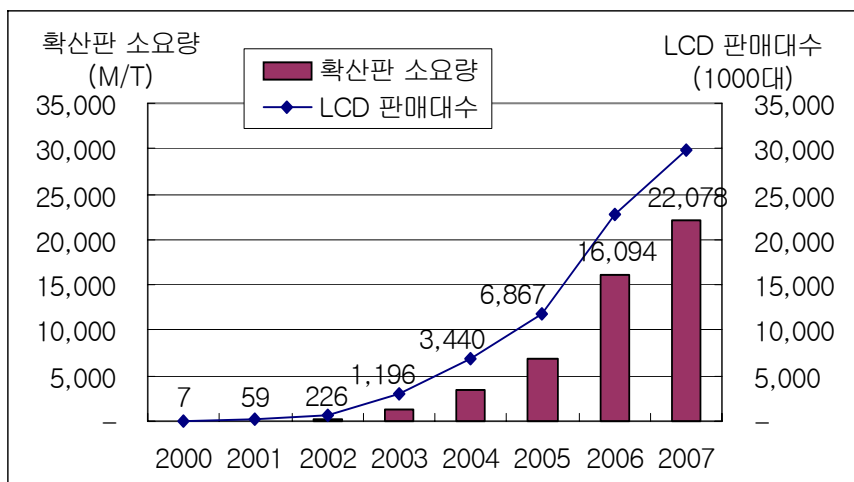
코오롱이 개발한 광확산판은 국내 최초이자 일본 Sumitomo Chemical과 Asahi-Kasei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기존 중소형 TFT-LCD에 비해 고휘도 및 고확산성이 요구되는 중·대형 LCD TV에 사용되는 필수 부품이다.

코오롱은 2004년 6월 생산설비를 완공해 9월부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4년 30억, 2005년 2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TFT-LCD TV 시장은 2002년 130만대에서 2006에는 2400만대로 매년 10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광확산판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은 앞으로 TFT-LCD TV 시장의 성장속도를 감안해 추가 증설도 고려하고 있으며, 전자재료 부문의 매출을 2003년 350억, 2004년 550억, 2005년 1000억원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LCD TV 및 확산판 시장 전망



† Display Search 자료를 근거로 추정

디스플레이산업을 볼 때 LCD TV 시장에서도 국내기업들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까지는 투입재료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실질적인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재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코오롱은 기존 전자재료용 필름에 이어 향후 전자 Chemical 소재, 디스플레이용 광학 소재, 그리고 유기 EL용 소재에서도 시장우위를 차지해 전자소재 전문기업으로 변모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15>